

30대 직장 남성의 우울 성향이 심장에 대한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용찬, 송상욱, 신진희, 강성구, 이수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성빈센트병원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이 연구는 30대 직장 남성에서 보이는 우울성향이 심장에 대한 자율신경계 조절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2년 6월에서 7월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일개 직장의 30대 남성 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Zung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 지수에 기초하여 우울성향군(n=15)과 비우울군(n=70)으로 분류하였다. 심박변이도는 5분 동안의 심전도 기록을 시간 및 주파수 범위 분석하였다. 통계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0.0)을 이용하였다.

결과: 음주, 흡연, 체질량 지수 또는 운동 유무에 대해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심박변이도(SDNN, rMSSD, TP, LF, HF)는 비우울군에 비해 우울성향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평균 심박동수와 고주파수에 대한 저주파수 비는 우울성향군이 비우울군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심장의 활성력에 대한 예측지표인 심박변이도의 감소는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우울증 환자에서 심장에 대한 정상적인 자율신경계 조절의 변화가 치명적인 부정맥 또는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단어: 심박변이도, 우울성향, 심혈관 질환